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최종 무죄 선고

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족쇄 풀렸다

법원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미전실 관련자들 무죄 판결

경영 정상화, 먹거리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속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 혐의가 무죄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지난 10년간 받아왔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2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정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하는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8년여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동안 감옥에 가고 해외 출장이 금지되는 등 여러가지 곤혹을 치렀지만 예상대로 무죄가 확정돼 다행이다”며 “미국과 일본에 도입되지 않은 IFRS(국제 회계기준)를 2011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삼성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피해

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도 스스로 깨닫고 있듯이 위기에 빠진 삼성이라는 조직을 잘 추스르고 적극적인 M&A를 통한 기술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美 6월 물가 상승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동결’ 무게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물가 목표치(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겠다는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다”면서도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향해 금리를 3%포인트(p) 내리라며 사임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4.50%로 지난해 말부터 다섯차례 동결됐다. 트럼프가 요구한대로 기준금리를 3%p 내리면 연 1.5%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심화되면서 금리를 올리기 전인 2022년 5월(연 1.0%)로 기준금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요구

6월 CPI 2.7%, 물가 목표 초과

美 연준, 물가 안정 우선 주장

금리 인하, 올해 말로 미뤄질 듯

문제는 물가가 금리를 올리기 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2년 5월 8.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현재 2~3%대로 내려왔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0% ▲2월 2.8% ▲3월 2.4% ▲4월 2.3% ▲5월 2.4% ▲6월 2.7%로 평균 2.6%다. 금리를 올리기 전 1%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까지 2%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6월 2.7%로 뛰었다. 연준의 주요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다. 물가가 목표치(2%)를 상회하는 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이 되어 서야 금리 인하를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며 6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올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을 마친 뒤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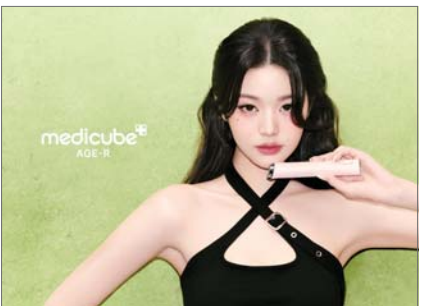
/나유리 기자 yul115@

현지생산·혁신기술·유통확대… 고관세 맞서는 K뷰티

한국콜마, 美서 두번 째 공장 가동
에이피알, 국제적 안전성·효능 입증

국내 뷰티 업계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고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거나 국제적 인증 획득으로 제품의 평판을 높이는 성과 등이 눈길을 끈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는 최근 미국에서 국내 뷰티 브랜드를 비롯해 글로벌 브랜드까지 정조준하는 핵심 기지를 마련했다.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의 브랜드 모델 장원영이 브랜드 대표 제품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에이피알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미국 현지에 제2공장을 직접 세운 사례로는 처음이다.

지난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국콜마는 콜마USA 제2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을 공식 알렸다. 이번 제

2공장 설립은 일찍이 2023년 1월부터 추진돼 2년 반 만에 완성됐다.

제2공장은 연간 약 1억2000만 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기존 제1공장까지 더하면 한국콜마는 현재 미국 현지에서만 연간 약 3억 개에 달하는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제2공장은 기초스킨케어 제품과 선키어 제품을, 제1공장은 색조 화장품을 맡는다.

한국콜마는 제2공장 가동을 통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현지 제조로 관세 영향을 해소하는 동시에, ‘메이드 바이 콜마’에 중점을 둔 국내외 고객사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제2공장 준공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미국 제2공장은 새로운 비전과 협력의 출발점으로, 다양한 밸류체인 파트너들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북미 최대 화장품 제조 허브(HUB)로 도약하겠다”며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진출을 원하는 K뷰티는 물론 북미,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 유연하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K뷰티테크 대표 브랜드사 에이피알은 자사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 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했다. 〈4면에 계속〉

/이정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인사청문회 논란 장관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 “미국서 이 대통령 친중이라고 오해”…
▲한미동맹 최우선” /사진 뉴시스

▲김정관 “재생에너지·원전 같이 간다는 신념… 실용적으로 조화돼야”
▲“에어컨 설치하라”… 인권위에 ‘尹 수감생활 개선’ 진정 잇따라

▲윤상현 “李 민주당 위주 특사단 구성… 선거공신 챙기기”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 “경찰국 신속 폐지… 최악 참사, 세월호·이태원”